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홍해작전 승전감사의 날

오늘 찬양예배 시 승전보고

지난 25일로 20일 간에 걸친 홍해작전이 모두 끝나고 주일인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승전감사예배로 드린다.

이 감사예배에서는 참모진들의 승전보고에 이어 20일 동안 이 작전을 성공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할 것을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홍해작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교회 교인들에게 단순한 연례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도생활의 영적 훈련기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홍해작전에서 성도들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관해 말씀을 듣고,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 민족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98홍해작전 마지막 날인 25일 새벽 당회원들이 특송을 하고 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 - 성찬식 거행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7월 5일)을 '98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 낮 I·II·III부 예배 시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교회학교에서는 부서별로 집회시간에 축하행사를 갖고, 저녁 찬양예배시간에는 유아·유치·유년·초등부가 준비한 감사절 축하행사를 갖는다.



맥추감사절은? 맥추절(출23:16)은 유월절(레23:5-8), 초막절(레23:34-44)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 하나이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로도 불리우는 이날은 무교절,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들고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날로 삼았다.

맥추감사절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 특별히 1998년도 6개월 동안 우리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을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성도를 위한 영성세미나

7월 2일(목) 모든 남성도 참석 요망

남선교회 영성세미나가 7월2일(목) 교회당 4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대상은 서울교회 남성 모두이며 다들 주제는 "영성"에 대한 것으로 강사는 이종윤 목사이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친교를 위해 오후 6시30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며 7시30부터 본세미나를 진행한 후 8시30분부터는 선교회원 간 친목의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전도위원회에서는 남성도들이 현재의 갖가지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선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모세·바울·베드로·요한선교회 연합으로 남자 성도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로마서 강해 오늘 시작

지난 주일로 그간 해 오던 고린도전·후서 공부를 모두 마치고 오늘 찬양예배 시부터는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가 시작된다.

여름행사 주제 확정

'98 교회학교 여름행사의 주제가 확정됐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종시 장로)는 이번 여름행사의 주제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정하고 7-8월 중 각 교회학교별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주제 성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장 17절)이다.

또한 주요 교육내용 역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미 12일(금)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하여 교회학교의 여름행사의 주제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주제에 맞게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97순례자·주보 합본 발행

97 순례자와 주보 합본이 각각 발행됐다. 판매는 2층 서적·테이프 보급소에서 하며 원하시는 분은 제작 실비에 구입할 수 있다.

이사야 강해

마헬살랄하스바스

이사야 8장 1-10절

남 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 침략한다는 소문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이므로 남 유다를 보호하실 터이니 아하스는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과 앗시리아에 청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메시아 예언이 있는 후에도 아하스를 비롯한 모든 남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대적하고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두 번째 계시를 주십니다.

1. 하나님의 예언은 확실하고 공개적이다

‘마헬살랄하스바스’는 히브리어로 복합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획물이 급하다, 약탈물이 재촉하다’ 등의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뜻을 종합해 보면 ‘급히 부패하고 서둘러 약탈이 된다’, 즉 ‘쉽고 빨리 망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징조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길을 찾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게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용문자를 사용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서판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가 앗시리아의 도움을 받겠느냐? 오리라 앗시리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서판에 써서 유대 백성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하고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아내가 양태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숨으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은 자는 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유대 백성들이 이것조차도 무시할 한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아들을 낳게 하여 그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하신 것입니다.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어머니로부터 불러지는 이름이며 8장에 나오는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이름은 아버지로부터 불러지는 이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서판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와 여베레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파, 내 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통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임마누엘이여 그의 파는 날 내가 네 땅에 편안하리라 하였느니라...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사 8:1-10)

이중윤 목사



2.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사야 7장 15-16절에서 메시아 예언이 나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적국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마헬살랄하스바스는 이 아이가 내 아파, 내 임마라는 말을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에서 끌어 모은 노략물들이 모두 앗수르의 왕궁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5-16절에서 예언된 말씀이 여기서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있는 지 2년 후(BC 732년)에 다메섹은 앗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에 의해서 멸망됩니다(왕하 15:29).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지도자를 세우시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여겨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3. 하나님의 계시를 불신하면 재앙을 받는다

유대 백성들의 죄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은 버리고 아람의 왕인 르신과 에브라임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을 기뻐한 것입니다.

저들을 기뻐했다는 말은 힘있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실로암 물은 천천히 흐르고 ‘통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유브라데강 물은 황급히 흐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실로암 물은 천천히 흐른다고 버리고 황급히 흐르

는 유브라데강의 물은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 있게 천천히 임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인내로 기다리며 천천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천히 흐른다는 말은 고요하게 흐른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겉으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결국 급하게 흐르는 유브라데강 물이 폭에까지 차 올라와 유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천히 흐른다고 실로암 물을 버리는 유대 백성들과 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 임한다고 불평하지 않으며 지금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앗시리아는 유대를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를 멸망시켰습니다. 우리는 끈고한 날에 결코 세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98홍해작전 승전보고서

20일 더 연장했으면...

유을상 집사(4교구)

홍해작전을 통하여 상하고 갈급한 제 심령 속에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들은 너무도 오묘했습니다. 이종윤 목사님의 영혼 깊은 곳에 애소하시던 진리의 말씀들이 너무 좋아 홍해작전을 20일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난히 잠이 많은 제게 20일 홍해작전 내내 하루 3-4시간 잠을 자고도(집이 양천구에 있어 4시에 교회로 출발해야 함) 다시 다음 날 새벽을 기다릴 만큼 말씀 사모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32년 전 호기심에 술을 입에 대었다가 점점 빠져들어 급기야 하루도 마시지 않으면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알코올중독이란 병은 절망, 원한, 미움, 두려움, 등이 연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그리하여 모든 나쁜 짓에 대한 호기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며 양심 불감증으로 인해 모든 조절능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암이나 에이즈보다 무서우며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 질병입니다.

그러한 병에 걸린 저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지 않으면 도무지 불안감에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되어 사업은 엉망이 되었고 가정은 파괴되었으며 저의 하루 하루는 절망의 연속이었고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 일도 않고 최장 21일간 잠자는 시간 외에 술을 마신 일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도 생명이 연장된 것이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겨저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은 저의 손을 잡아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아일보에 연재된 칼럼 순례자를 통해 서울교회로 발길을 인도해 주셨고 다락방 식구들의 권면과 기도 그리고 목사님의 도움으로 지금부터 1년 7개월 전, 술마시기 시작한 지 꼭 30년 만에 술에서 해방되고 사업과 가정에도 회복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홍해작전에 적극 동참할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백성을 뒤쫓던 애굽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듯 그간 저를 괴롭혔던 절망, 시비, 원한, 교만, 이기심, 불순종 등 모든 악의 찌꺼기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과 충만함으로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 나라에 1,000만 이상의 음주 인구가 있고 지금도 술에 의존해 목숨을 연명하는 중증 중독자들이 많이 있으며 병원마다 수많은 알코올중독자들이 격리 수용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병은 영적 질병이기에 어느 정신과 의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술로 파괴되고 죽어가는 술중독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작전이 선포되었을 때 그간 힘들 때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홍해작전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려면 거리도 멀고 아이들 데리고 가게문 늦게 닫는 것, 새벽에 택시 탈 때의 두려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 또한 이뤄면서 홍해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홍해작전에 참가하시기 위해 교회에서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방법이 제게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4일 간은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신나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워낙 늦게 가게문을 닫다보니 교회에 도착하면 주무시고 계신 관리 집사님을 깨우게 되어 몹시 미안했습니다. 20일 간을 약속했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난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주무시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손수 자명종을 준비하셔서 제가 교회에 도착할 밤 11시 30분이면 현관에 나와 문을 여시고 맞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은 지 10년이 된 저는 이번에 모처럼 새벽기도회에 나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간 받은 많은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드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것 용서받고, 처음 믿었을 때의 뜨거운 믿음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간 밀렸던 기도까지 정말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20일이 지났고 홍해를 건너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홍해작전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점숙 권사님 그리고 관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저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려고 기도할 기회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같이

송금자 집사(9교구)

봉고차 안에서의 승전보고

8교구 수유·쌍문·미아 다락방 가족들

▶ 송인순 권사: 올해의 홍해작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무도 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환부의 완치와 하나뿐인 딸자식의 건강 소식입니다.

▶ 허진자 권사: 예배의 중요성을 새삼 깨우쳤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엄수하여 준비된 예배를 드릴 것을 결심했습니다. 내년 홍해작전 때 변화된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 한정석 권사: 홍해작전 새벽 설교말씀 중

에 내 직분을 더욱 성실히,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강희자 권사: 구역장으로서 조금은 벅찼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 모든 분들이 작년과 다른 불꽃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장래혁 성도가 차량봉사 등 일선에서 기쁨으로 헌신한 것 감사드립니다.

▶ 정빈모 집사: 주님 말씀 잘 따르니 75세의 나이에 '젊은 오피' 소릴 다 듣고... 하여튼 서울교회 만만세!

▶ 김현주 권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저런 사정으로 홍해작전에 출발없는 충을 들고 다닌 꼴이 됐습니다. 내년엔 완전무장하여 승리의 최선봉에 설 것입니다.

▶ 제오복 집사: 제복이, 제순이 등등. 참서운합니다. 이 좋은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질 않다니... 내년엔 맛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다가 제대로 불러주는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 강애자 성도: '거룩한 진리로' 내 영혼이 새로와졌습니다.

▶ 장래혁 성도: 재작년 주님의 은혜로 차를 구했는데 올해 홍해작전에는 더 많은 다락방 가족들이 참여하셔서 7인승 차가 10인승 뒤편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내년엔 더 큰 차를 구해서 더 많은 분들을 홍해작전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어찌면 그렇게도 불타는 사랑을 가지셨는지 차내는 좁아도 새벽마다 리무진을 탄 분이었습니다.

시민대학에 가는 기대

그리스도의 빛 비추이길

이신애(시민대학 창업준비과정 수강자)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시민대학 첫 날 강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오후 늦게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진지하게, 오히려 무겁게 느껴질 정도의 분위기에서 첫 날 수업을 마쳤다.

첫 시간 채규철 박사님의 강의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준 살아있는 시간이었다. 강의 도중 옆 자리의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였고 참석자 모두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었다.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다.

생선을 받아가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배

우고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대로 시민대학에 오신 많은 분들이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어부의 역할도 감당하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수강자들의 경우는 시민대학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큰 복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틈나는대로 찬양을 인도해 주신 김정현 목사님, 많은 수강자로 인해 교재가 모자라 난감할 때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이성득 목사님, 정성스럽게 식사와 차를 준비하여 대접해 주신 숨은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시민대학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큰 위로가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 귀한 프로

그램을 준비해 주신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 열심히 강의를 해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지금의 어려움은 성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때문이라 여겨지기에 먼저 믿는 우리가 각성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시민대학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밝히 빛나기를 바란다.

■ 금주 시민대학 강좌 ■

- 고객만족과 고객서비스(김재술 소장)
- 경건의 시간(이종윤 목사)
- 단골만들기(김재술 소장)
- 종업원 육성 및 관리기법(김재술 소장)
- 창업성공사례 발표(이찬호 사장)
- 성취인의 심리(이학주 교수)
- 점객기법 및 전화예절(조춘택 실장)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6월 새가족환영회

* 6월의 새가족 *

이영희 이지민 이정옥 홍서연 박종환 최정아
최정운 김미성 정영숙 최돈열 김지연 최문영
최은숙 유희자 이정은 문원배 한정혜 강영지
최기숙 신현희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교회학교 소식

◇ 중등부 = 지난 주일 전도시상식을 가졌다. 집회 후에는 강남역 부근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문동진 기자)

순례자 컬럼

온유한 자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온유한 자가 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은 시대성이 없는 말씀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불변한 진리다.

온유한 자란 중용지도를 택하거나 부드럽고 양보 잘하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가르친 온유는 자신의 이익과 흥미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도록 노력하게끔 조정한 자이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더불어

명을 나눌 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함으로 그의 온유함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진노를 내리셨을 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미리암의 치병을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는 칭찬을 받았다.

온유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등정

- ◇ 민영수 목사 전화번호 변경(☎544-0392)
- ◇ 한현숙 집사(임마누엘 찬양대 오르가니스트)는 27일(토) 예술의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피아노 듀오콘서트를 가졌다.
- ◇ 오늘 점심식사는 김영화 집사·권순단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감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감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진리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2. 새가족의 신앙성숙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해
3. 서울시민대학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